

# 국어 영역

17회

성명

수험 번호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시오.

Hi Fine Fox!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 문형(홀수/짝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공통과목 및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확인하고,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공통과목** .....
- 독서 .....
- 문학 .....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회적 비판 이론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현실 비판을 ㉠ 일컫는다. 그들은 근대적 이성의 힘을 이용한 권위주의적 사회를 비판하기 위해 이론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지성인들의 끊임없는 비판과 인식을 통해 사회적 부조리를 견제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을 위한 사유의 틀을 제시하여야 했다. 근대적 이성이 합리적 질서를 확립한다는 믿음 뒤에 숨어 있는 권력 관계와 억압 구조를 폭로하며, 그들이 규정한 이성이 가져온 것은 인간의 자유가 아닌 자본과 제도에 인간이 예속되는 반자유적 현상임을 문제삼은 것이다.

이러한 비판 이론의 대표주자인 아도르노는 부정변증법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전통적 변증법의 ‘정’과 ‘반’의 대립을 ‘합’으로 통합하는 개념과는 다르다. 부정변증법을 통해 합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그는 전통적 변증법에서는 ‘합’의 수단에 불과한 ‘부정’이 적극적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주장하며 차이의 철학을 ㉡ 뒷받침한다. 이는 근대적인 보편 이성이 개인을 억압하는 상황에서 현실의 복잡성과 개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철학이며, 아도르노는 그것에 맞춰 실제 현실의 다층적·복합적 측면을 인정하고 활성화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부정변증법은 기존 변증법의 일직선적 발전 논리를 해체하고, ‘부정’을 근본적으로 재규정한다. 기존 변증법에서 ‘부정’이 종합되고 말아 궁극적 긍정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에 반기를 든 그는, 근대적 이성은 인위적으로 형성된 것에 불과하고 자유를 향한 수단이 아닌 인간을 사회체계에 예속하는 억압적 장치임을 지적했다. 또한 변증법의 방식은 이러한 억압적 요소를 강화하며, 이성과 제도를 동일시하려는 시도가 실제로는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권력과 맞닿아있음을 주장한다. ‘부정’이 종합되어 궁극적 긍정 지향의 수단이 되는 것은, 다양하고 복잡한 개인을 근대적 이성에 예속하는 것이라 본 것이다. 아도르노는 부정변증법을 통해 대상과 개념 사이에 존재하는 불일치, 즉 다양한 인간과 획일된 이성의 불일치를 은폐하는 구조를 폭로하고자 하였다. 아도르노에게 부정변증법은 인간을 수단화하는 구조를 비판하고 근대적 이성의 획일성을 끝없이 의심하는 이론적 무기가 된다.

그는 사회의 권위주의와 이성의 독단적 지배를 비판하고 인간 해방의 가능성을 ㉢ 열려 하였다. 부정변증법을 통해 사고와 사회가 이성으로 대변되는 ‘완결된 진리’에 예속되지 않도록 하며, 끊임없이 세계를 균열시키고 차이를 드러내도록 이끌고자 한 것이다. 그는 어떤 체제나 개념도 절대적이지 않음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해방 가능성을 확보하는 길이라 보았다. 부정변증법은 제도와 사상의 굳어진 틀을 깨뜨리는 역동적 사유라고 할 수 있다.

(나)

아도르노의 부정변증법은 절대적인 가치로 표상되던 이성이 가져온 지배 논리와 권위주의의 부작용을 탐색하고자 한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 방식은 그 자체로 어떤 실천적 비전을 제공하지는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곤 한다. 기존 구조를

해체하는 것에만 주력하는 부정의 논리만으로는, 대안이나 미래적 전망의 부재로 비판을 넘어서는 어떠한 수립적 동력을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부정변증법은 이성과 개념이 가진 폭력성을 강조하지만,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언어와 개념이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견해도 있다. 아도르노는 개념이 대상에 내재하는 비동일성을 온전히 ㉣ 이끌어낼 수 없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어와 개념에 ㉤ 유보적 태도를 지속할 수는 없으며 그것을 전면 부정할 수도 없다는 문제의식이 등장하는 것이다. 언어와 개념은 세계를 단순화하지만, 그러한 과정 없이 개인이 현실에 개입하거나 상호 소통을 이루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부정변증법의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옹호 또한 언어와 개념을 통해서 표현된다는 모순이 존재한다.

아도르노는 대중문화와 같은 거대 자본체제와 문화가 결합한 행태에 비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대안적 문화로의 참여적 움직임을 어떻게 이루어낼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문화의 위상을 대중 문화부터 전위 예술까지로 ㉥ 나누고 그들의 위계화는 이루어졌지만, 이를 포괄하고 타인을 수용하는 실천적 전략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였다는 것은 부정변증법이 전면으로 마주해온 수립적 동력의 부재에 대한 비판 가능성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것이었다. 거부와 유보, 그리고 위계화만으로는 협력의 다른 양상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판 이론이 지닌 태생적 딜레마가 재차 드러나는 것이다. 그가 지닌 문화에 대한 높은 기대는 다시 그가 제시한 문제적인 이론과 현실의 불일치로 회귀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부정변증법처럼 부정성의 강조가 너무 심화되면 결국 어떠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여지를 제약해버릴 위험이 존재한다. 부정은 기존 권위와 구조를 무너뜨리는 동력이 될 수 있으나, 태도적 측면만 제시하는 동시에 다음 단계를 설정하지 않는 탓에 이론을 공허한 저항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면성 때문에 부정변증법은 이론적 무기로서의 강점과 실천 부재라는 약점을 함께 안고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아도르노의 사유가 보여준 날카로운 문제 제기의 가치는 존중할 만하나, 사회 변혁의 구체적 방향을 마련하려는 이들에게는 다소 아쉬움을 남기는 이론 체계로 남을 수밖에 없다.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근대적 이성이 다양화를 통해 가져온 권력 관계와 억압 구조를 비판하고 있다.
- ② (가)는 새로운 ‘부정’의 도입을 통해 긍정적 함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나)는 부정변증법이 제시한 수립적 동력의 부작용을 제기하고 해결책을 밝히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기존의 권위주의적 세계를 비판하고 부정변증법의 의의를 밝히고 있다.
- ⑤ (가)와 달리 (나)는 부정변증법이 가진 실천적 한계의 극복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 (가)의 **부정변증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직선적 발전 논리를 비판하며 끝없는 유보적 태도를 지향한다.
- ② 부정은 합으로 전락되지 않으며 그 자체로 강조되는 태도를 지향한다.
- ③ 완결된 진리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기존 제도에서의 해방을 추구한다.
- ④ 기존의 억압적 방식을 폭로하며 이성의 확일성을 의심하는 방안이다.
- ⑤ 실제 현실의 다양성을 추구하며 개념과 실제 간의 불일치를 드러낸다.

3. ㉠의 의미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도르노가 제시한 언어와 개념의 대안적 방안 또한 대상과 개념의 불일치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 ② 개념과 대상의 불일치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기에 그것에 대한 끝없는 유보는 적절하지 않다.
- ③ 차이와 다양성은 인간이 현실에 개입하거나 소통하는 것을 방해한다.
- ④ 필연적으로 불일치를 촉발하는 언어와 개념의 근대적 사용은 재고해야 한다.
- ⑤ 부정변증법이 추구하는 차이와 다양성은 기존 변증법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4. (가)의 아도르노와 (나)의 글쓴이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근대적 이성의 폭력성을 견지하는 태도로 충분한 사회적 기반을 세울 수 있다.
- ② 미래적 전망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는 새로운 '부정'의 도입으로 극복될 수 있다.
- ③ 일직선적 발전 논리의 거부를 통해 인간이 권력 관계로 예측되는 것을 완화할 수 있다.
- ④ 대중 문화와 자본의 결합은 부적절하며, 전위 예술이 대중 문화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⑤ 일직선적 발전 논리를 해체하는 과정은 개념과 대상의 대립을 해소한다.

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전위 예술은 기존 예술에 있어서 새로움과 혁신을 추구하는 저항적 예술이다. 기존의 합리성을 거부하고 규범을 파괴함으로써 기존 질서에 대한 반항을 표출한다. 형식의 파괴와 부정을 통해 무의미한 의미를 창출하는 다다이즘, 사물을 여러 방향에서 본 모습을 평면에 담아내고자 하였던 입체파가 전위 예술의 대표적인 방식이다. 이러한 전위 예술이 지닌 해체적 특징은 높이 평가되지만, 대중적인 문화까지 나아가기에는 문화적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 ① 근대성의 억압을 문제 삼는 관점은, 전위 예술이 기존의 합리성을 거부하는 것이 권위주의를 탈피하는 것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겠군.
- ② 수립적 동력의 부재를 우려하는 관점은, 전위 예술만으로는 개인을 포괄할 수 있는 대안적 문화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겠군.
- ③ 진리의 완결을 부정하고 해방을 추구하는 관점은, 전위 예술이 새로움과 혁신을 추구하는 것을 규범을 파괴하는 사유의 틀이라고 판단하겠군.
- ④ 언어와 개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관점은, 여러 방향에서의 모습을 평면에 담는 과정을 소통의 다양성을 간과하는 것으로 판단하겠군.
- ⑤ 현실의 다층적·복합적 측면을 인정하는 관점은, 무의미한 의미를 창출하는 과정을 근대적 이성의 확일성을 해체하는 것으로 판단하겠군.

6.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지칭(指稱)한다 ② ㉡ : 개선(改善)한다
- ③ ㉢ : 개척(開拓)하려 ④ ㉣ : 도출(導出)할
- ⑤ ㉤ : 구분(區分)하고

[7~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목숨은 때 묻었나  
절반은 흠이 된 빛깔  
황폐한 얼굴엔 표정이 없다.

나는 무한히 살고 싶더라  
너랑 살아 보고 싶더라  
살아서 죽음보다 그리운 것이 되고 싶더라

억만 광년의 현암(玄暗)을 거쳐  
나의 목숨 안에 와 닿는  
한 개의 별빛

㉠ 우리는 아직도 포연(砲煙)의 추억 속에서  
없어진 이름들을 부르고 있다  
따뜻이 체온에 젖어든 이름들

살은 자는 죽은 자를 증언하라  
죽은 자는 살은 자를 고발하라  
목숨의 조건은 고독하다.

바라보면 멀리도 왔다마는  
나의 뒤 저편으로

㉡ 어찌면 신명나게 바람은 불고 있다.

어느 하 많은 시공(時空)이 지나  
모양 없이 지워질 숨자리에  
나의 ㉢ 백조는 살아서 돌아오라.

- 신동집, 「목숨」-

(나)

관자집 유리딱지에  
아이들 얼굴이  
불타는 해바라기마냥 걸려 있다.

내리쪼이던 햇살이 ㉣ 눈부시어 돌아선다.  
나도 돌아선다.  
울상이 된 그림자 나의 뒤를 따른다.

어느 접어든 골목에서 걸음을 멈춘다.  
젓더미가 소복한 울타리에  
개나리가 ㉤ 망울졌다.

저기 언덕을 내려 달리는  
소녀의 미소엔 앞나가 빠져  
죄 하나도 없다.

나는 술 취한듯 흥그러워진다.  
그림자 웃으며 앞장을 선다.

- 구상, 「초토의 시 1」-

7.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밝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대상의 태도 변화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전쟁의 참상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는 (나)와 달리 청유형 문장을 사용하여 화자의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유사한 구절의 반복을 통해 과거에 대한 회한을 표현하고 있다.

8.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살은 자'와 '죽은 자'를 합쳐서 일컫는 표현이다.
- ② ㉡은 이미 이루어진 화자의 이상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 ③ ㉢은 '때' 묻은 '목숨'과 대비되는 소재로, 화자가 회복하기를 바라는 대상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 ④ ㉣은 화자와 대상의 긍정적 속성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 ⑤ ㉤은 꽃이 진 상황을 제시하여 시대적 상황의 암울함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9.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전쟁 속에서 인간은 절망을 느끼지만, 그 안에서 희망을 찾기도 한다. (가)는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의 존재론적 갈등과 그들이 느끼는 책임을 보여주지만, 이를 넘어서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로 시상을 마무리한다. (나)는 전쟁으로 황폐해진 환경과 전쟁의 피해자인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얼굴을 대조하여 전쟁의 폐허 속에서 밝은 미래를 발견한다. 두 작품 모두 대조적인 시어를 통해 전쟁의 비극과 희망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 ① (가)에서 '목숨의 조건은 고독하다.'는 말은 전쟁으로부터 살아남은 사람의 존재론적 갈등을 드러내는군.
- ② (나)에서 '죄 하나도' 없는 '소녀'를 통해 전쟁 피해자의 모습과 밝은 미래를 동시에 제시하여, 같은 대상 안에 내재된 이중성을 보여주는군.
- ③ (가)에서 '모양 없이 지워질 숨자리'는 밝은 미래가 오기까지의 시간을 의미하고, (나)에서 '앞나가 빠져'가 보여주는 신체적 결손은 '소녀'가 가지고 있는 희망의 이미지와 대비되는군.
- ④ (가)에서 '죽은 자는 살은 자를 고발하라'는 전쟁으로부터 살아남은 사람들의 책임을, (나)에서 '젓더미가 소복한 울타리'는 '개나리'와 대비되어 부정적인 환경을 의미하는군.
- ⑤ (가)에서 '바람'이 '신명나게' 부는 것은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를, (나)에서 '골목에서 걸음을' 멈추는 행위는 부정적인 현실 속 본인의 태도에 대한 회의를 나타내는군.